

“3·1절엔 병원 복도 대신 ‘민주화 성지’ 달립니다”



개원 9개월... 첫 대외 행사
직원 30여명 하프코스 도전
계단 오르내리며 틈틈이 체력 훈련
마라톤대회 향후 연례 행사 정착
급식 봉사 등 나눔도 생활화

“함께해요 동행, 행복해요 동행, 친절-미소 파이팅.”

“제55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 첫 출전하는 ‘동행재활요양병원팀’은 마라톤 출발 신호가 울리기 전 직원들이 직접 만든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지난해 6월 광주시 북구 신안동에 문을 연 동행재활요양병원은 개원 후 첫 대외 행사로 ‘3·1절 마라톤’을 선택했다. 이번 대회에는 직원 160명 가운데 30여 명이 참가한다.

“무료 급식 봉사나 ‘이달의 친절상’ 시상식 등 크

고 작은 행사는 있었지만 많은 시민을 만나는 대형 행사에는 처음 참여합니다. 직원들과 광주의 상징인 금남로와 중장로, 중앙로를 함께 달릴 생각을 하니 설레네요.”

류기준(41) 대표원장은 대회 출전을 앞둔 기대감을 내비치며 각오를 다졌다.

이 팀은 하프코스(21.0975km)에 참가하며 ‘무사 완주’를 목표로 내걸었다. 팀의 주장으로는 ‘마라톤 유경험자’인 김정민(42) 의료원장이 나섰다.

“대학생 시절 학교가 주최한 마라톤 대회에 나간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소소한 상품을 노리고 달렸지만 반환점에 다다르니 체력이 부족해 뒤처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완주를 하고 나니 학우들과 협동하며 무언가를 해냈다는 짜릿함이 생겼고 그 느낌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중학교 2학년인 아들과 운동을 하고 병원에 마련된 하늘재활센터에서 틈틈이 런닝머신을 탈 계획입니다. 12층 높이 센터에서 운동하다 창 밖을 보면 저도 모르게 마라톤 대회를 손잡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자정 퇴근이 익숙해질 정도로 바쁜 일상을 보내는 최태진(45) 원장은 진료실과 병실을 계단으로 오가며 체력을 다지고 있다.

“자전거로 강변을 달리거나 축구, 농구, 탁구 종목에 발을 담갔는데 폭 빠진 스포츠는 그동안 없었어요. 이번에 처음 마라톤 대회를 뛰고 나서 적성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만병의 치료법은 단연 운동이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이곳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계시는데 겉거나 가벼운 달



‘제55회 3·1절 기념 전국 마라톤대회’에 첫 출전하는 동행재활요양병원 임직원이 11일 병원 앞에서 ‘무사 완주’ 각오를 다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리기를 재활 운동으로 삼고 있습니다.” 류 원장은 병원 이름 ‘동행’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며 동행재활요양병원의 포부를 밝혔다.

의료진 70명을 확보하고 호텔식 침단시설을 갖춘 동행재활요양병원은 마라톤 대회를 병원의 연례 행사로 이어갈 생각이라고 한다.

“직원 포상 가운데 하나인 ‘이달의 친절상’을 주는 월례조회에서 저희는 항상 ‘함께해요 동행, 행복해요 동행, 친절-미소 파이팅’을 외칩니다. ‘함께하며 행복하자’는 ‘동행’의 다짐을 되새기기 위해서

조. 부모님을 모시듯 환자 한 분 한 분을 대하는 마음으로 마라톤을 뛰며 시민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동행재활요양병원은 최근 광주은행, 기자자동차, 광주공공, 보혜양조, 광주-전남기자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내 복리 증진을 위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성탄절을 앞두고 광주시 남구 서동 무료급식소 ‘사랑의 식당’을 찾아 점심 배식 봉사에 나서기도 했다. 병원 임직원들은 산타 분장을 하고 급식소를 찾은 독거노인 150명에게 직접 식사를 대접했다. 배식 봉사 뒤에는 직원들

이 함께 모은 성금을 저소득층 이웃을 위해 전달했다.

“지역에서 간혹 불거지는 불미스러운 사건 탓에 요양병원을 바라보는 시민의 시선이 마냥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고령 환자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선진화된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 점차 치유될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싶어요. 동행재활요양병원이 광주 노인의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손흥민이 나타났다

중·고생 스포츠진로탐색 프로그램 파주 ‘드림 KFA’ 참여 맞춤형 조언



벤투호의 ‘캡틴’ 손흥민(토트넘)이 대한축구협회(KFA)가 주최한 스포츠진로탐색 프로그램인 ‘드림 KFA’에 깜짝 등장해 중고생들에게 맞춤형 조언을 해줬다.

손흥민은 11일 오전 파주 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NFC)에서 열린 ‘드림 KFA’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 모인 중고생 25명은 축구협회에서 제공한 버스 편으로 파주NFC로 이동해 대강당에서 ‘드림 KFA’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드림 KFA’는 축구협회가 2014년부터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스포츠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이 대강당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을 때, ‘깜짝 손님’이 등장했다. 바로 벤투호의 캡틴 손흥민이었다.

지난 6일 사우샘프턴과 FA컵 32강 재경기를 마친 손흥민은 오는 16일 애스턴 빌라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까지 경기 일정이 없어 최근 입국했다. 축구협회로부터 ‘드림 KFA’의 취지를 들은 손흥민은 흔쾌히 참가를 결정했다.

축구협회에 따르면 손흥민은 스포츠 관련 직업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유쾌하고 진지한 조언을 건넸다. 손흥민은 참가자들의 이름과 희망하는 직업을 미리 파악한 뒤 참가자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맞춤형 조언’을 했다.

한편, 손흥민의 이번 행사 참가는 병역특례자 봉사 활동으로 인정받는다. 손흥민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아 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연합뉴스

미국 그린 ‘별들의 전쟁’

14~17일 PGA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세계 랭킹 톱 10중 9명 참가
1위 매길로이 vs 2위 켈카 격돌... 한국, 임성재·이경훈·강성훈 출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 새 세계랭킹 1위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와 전 세계랭킹 1위 브룩스 켈카(미국)가 한자리에서 격돌한다.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리비에라 퍼시픽 팰리세이즈의 리비에라 컨트리클럽(파72·7146야드)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에서다.

이 대회는 지난해까지 제네시스 ‘오픈’으로 열렸지만, 올해부터 제네시스 ‘인타너셔널’로 격상됐다. 출전 선수들 144명에서 121명으로 제한한 반면, 총상금은 740만달러에서 930만달러(약 110억6000만원)로 증액됐다. 우승 상금은 133만2000달러에서 167만4000달러(약 19억9000달러)로 올랐다.

우승자가 누리는 향후 PGA 투어 대회 출전 자격 혜택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앞서 올해 열린 대회들과 비교해 단연 최대 규모다. 그만큼 스타 선수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

이번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에는 남자골프 세계 랭킹 톱10 가운데 9명이 출전한다.

세계랭킹 8위 우즈는 지난해 10월 조조 챔피언십에서 2019-2020시즌 첫 승을 올린 데 이어 시즌 2승, 올해 첫 승을 노린다.

매길로이는 새롭게 세계랭킹 1위에 오른 뒤 처음으로 대회에 출전한다. 매길로이는 작년 후반 활약을 발판으로 10일 자 세계랭킹에서 1위에 올랐다. 켈카는 작년 9월 무릎을 다친 후 대회에 거의 출전하지 못하면서 9개월 동안 지켜왔던 1위 자리를 내줬다.

이번 대회는 매길로이와 켈카의 명예가 걸린 자존심 대결의 무대이기도 하다. 세계랭킹 3위 온 램(스페인), 4위 저스틴 토머스(미국), 5위 더스틴 존슨(미국), 6위 패트릭 캔틀레이(미국)도 출사표를 냈다. 9위 젠더 쇼플리(미국)와 10위 저스틴 로즈(잉글랜드)도 출전한다. 톱 10 중 7위 웨브 심프슨만 불참한다.

이밖에 필 미켈슨과 조던 스피스, 버바 왓슨, 브

라이언 디샬보, 패트릭 리드(이상 미국), 제이슨 데이(호주),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 마쓰야마 히데키(일본) 등 내로라하는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

한다. 한국 선수 중에는 지난해 이 대회 3위를 차지한 김시우와 지난 시즌 신인왕 임성재, 이경훈, 강성훈이 출전한다. /연합뉴스



매길로이



켈카



우즈

한다. 한국 선수 중에는 지난해 이 대회 3위를 차지한 김시우와 지난 시즌 신인왕 임성재, 이경훈, 강성훈이 출전한다. /연합뉴스

달아오르는 호주 그린

13~16일 LPGA 한다 여자 오픈... 한국 박인비·이정은 등 출전
박희영 연승 관심... 신종 코로나 여파 3월 중순까지 4경기 취소

2020시즌 세 번째 대회 만에 첫 우승자가 나온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의 한국 군단이 연승에 도전한다.

LPGA 투어는 9일까지 빅토리아주 서틴스 비치 골프 링크스의 비치 코스에서 열린 ISPS 한다 빅오픈에 이어 호주에서 일정을 이어간다.

이번 주는 13~16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로열 애들레이드 골프 클럽(파72·6648야드)에서 ISPS 한다 호주여자오픈(총상금 130만 달러)이 열린다.

이번 대회를 마치고 LPGA 투어는 3월 19일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열리는 볼빅 파운더스컵까지 예상치 못한 휴가를 앞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20일부터 태국에서 열린 예정이던 한다 LPGA 타이랜드, 27일부터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던 HSBC 위민스 월드챔피언십, 3월 첫째 주 중국 블루베이 LPGA가 줄줄이 취소됐다. 출전할 수 있는 대회 수가 급격히 줄어든 만큼 하나의 대회가 갖는 의미는 더욱 커졌다.

휴식기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대회에도 다수의 한국 선수가 출전해 우승 경쟁에 뛰어들는다.

빅오픈에서 연장전 끝에 정상에 올라 6년 넘게 이어지던 우승 가뭄을 해소한 박희영의 상승세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해 상금 순위 110위에 그쳐 켈리파잉 토너먼트 Q시리즈를 거쳐 LPGA 투어 출전 자격을 획득했을 정도로 부진했던 박희영은 빅오픈에서 한국인 최고령 우승 신기록(만 32세 8개월 16일)을 작성하며 부활을 알렸다.

시즌을 시작한 빅오픈에서 박희영, 최혜진과 연장에 올랐으나 2차전에서 먼저 탈락한 유소연도 다시 우승 도전장을 내민다. 출전 대회 수가 줄어든 건 유소연에게도 2020 도쿄 올림픽 출전을 꿈꾸는 선수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올림픽 타이틀 방어에 나서려면 분전이 필요한 박인비, 뒷순위 선수들의 추격을 받는 이정은(24·9위) 등의 마음도 급할 수밖에 없다. 박인비와 이정은은 빅오픈에서 나란히 첫 탈락한 뒤 이번 대회에



박희영



이정은



박인비

로 연장전에 들어간 뒤 박희영과 4차 연장전까지 치른 끝에 준우승, 국내 무대 최장자다운 면모를 뽐냈다. 조아연은 4라운드 난조로 공동 16위로 미끄러졌으나 3라운드 단독 선두에 오르며 가능성을 확인했다. /연합뉴스